

워싱턴 집회에서 트럼프지지 신에게 미국의 보필을 부탁하며 기도하다

[밍후이왕] 2020년 12월 12일 토요일, 수십만 미국민중은 또 한번 수도 워싱턴에 모여 부정선거에 대해 항의했다. 그들은 미국국가 플라자, 최고법원과 프리덤 플라자 등 여러개 지점에서 집회와 대행진을 개최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은 신에게 미국의 보필을 부탁하며 기도를 올렸다.

매사추세츠주, 오하이오주, 펜실베이니아주, 사우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주 등 전미국 각 지역의 민중들이 집회에 참가했다. 그들은 동반하여 워싱턴에 도착했다. 일부분 먼저 온 사람들은 새벽부터 집회, 행진을 시작했다. 사람들은 높이 웨쳤다: “절때 포기하지 않는다!” “도둑질 선거를 정지하자!” “트럼프! 트럼프! 트럼프!” “USA! USA! USA!”

아침 11시부터 부동한 영역에서 모인 서로 다른 종족의 30여명의 미국인들이 연설했다. 그중에는 정계요원, 신직인원, 기업가, 비정부조직대표, 군인, 방송국 앵커, 가수 등이 있었다. 그들은 연설에서 “미국의 건국이념은 신에 대한 신앙이다. 신에게 기도해야만이 사악과 거짓말을 쫓아내고, 광명과 진상을 얻을 수 있다; 신께서 미국을 회귀의 길로 인도하여 다시 신앙이 있는 국도로 돌아오게 할 수 있다.” 고 강조했다.

플린 장군: 진상은 영원히 거짓말을 이겨낼 수 있다

플린 장군은 말했다: 진상은 영원히 거짓말을 이겨낼 수 있고, 정의는 영원히 침범학대와 사기



▲ 11월 14일 워싱턴 DC의 프리덤 플라자에서는 50개 주 전체에서 수십만 명이 모여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부정선거에 항의하며 선거무효를 요구했다.

를 이겨낼 수 있으며, 성실은 영원히 부패를 이겨낼 수 있다.

매체를 언급하며 플린 장군은 가짜매체는 우리나라 상대로 조롱하고, 그들은 매우 지나쳤다. <대기원 시보>는 아주 대단하다고 표시했다. 그는 말했다: “진상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만 관계 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영혼과도 관계된다. 우리는 반드시 잘 해결해야 한다.”

그는 성경이야기 중의 예리코로 비유했다: 심층 정부의 성벽안에 사악과 부패가 있다. 하지만 광명과 진상이 있다. 우리는 곧 광명과 진상을 찾아낼 것이다. 우리는 성벽안에서 이 벽을 무너뜨릴 것이다. 우리는 미국을 사랑한다. 미국의 헌법을 위해 또 트럼프대통령을 위해 신께서 미국을 보필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

린델: 부정선거가 폭로 된 것은

신의 기적이다

My Pillow 수석 마이클 린델은 집회에서 발언했다: 전력을 다해 트럼프를 위해 전투해야 한다, ...우리의 국가가 신에게로 회귀 할 것을 나는 장미가든에서 기도한다. 매개인이 모두 신을 위해 나서야 한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으로 후진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싶다. 우리에게 단 한가지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면 그것은 신에 대한 경외(敬畏) 일 것이다.

대선 당일 11시, 워싱턴 트럼프캠프에서 누군가 트럼프는 매개주에서 모두 이기고 있다고 말했다. 파월변호사는 “11시 15분에 개표방법이 파괴된 이유는 트럼프 표가 너무 많았기에 그들(부정행위자)은 부득불 개표를 정지하고 가짜 표를 섞어야 했다. 사기는 진실하게 발생했다.” 고 말했다.

린델은 말했다:(뒷면에 계속)

35 개국 900 명 넘는 정요들이 파룬궁 박해 중단 촉구 공동선언문에 서명

[밍후이왕] 12 월 10 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35 개국 지역에서 전·현직 장관과 의원 900 명 이상이 중국공산당의 잔혹한 파룬궁 박해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의원들은 21 년째 계속되고 있는 파룬궁 수련생들의 박해에 저항하는 평화로운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그리고 중공이 파룬궁에 대한 계통적이고 야만적인 박해를 직각 정지 할 것을 요구했다.

이 전세계 정요 공동성명행동은 캐나다의 피터 켄트, 주디 스 그로 의원과 스웨덴의 앤 소피 알름 의원이 금년 7 월 20 일 파룬궁 반박해 21 주년 전야에 공동으로 발기했다. 성명은“중국

에서 발생한 파룬궁 박해는 현대 신앙단체에 대한 가장 가혹한 캠페인 중 하나였다.”라고 밝혔다.

성명은 “중국정부는 그가 서명한 국제 규범과 <연합국 공민권리와 정치권 국제공약>을 존중하고, 중국 내 파룬궁 박해를 즉각 중단하며, 억류된 파룬궁 수련자와 다른 양심수들을 무조건 석방할 것을 중국 정부에 촉구 한다”라고 썼다.

연합성명에 참가한 35 개국 정요는 영국, 캐나다,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벨기에,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핀란드, 아르헨티나, 칠레,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

아,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스페인, 베네수엘라, 사이프러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일본, 홍콩, 대만, 인도네시아 등 35 개국과 지역에서 왔다.

연합서명 발기인 중 한 명인, 캐나다 전 환경부장, 현임 국회 자격 높은 의원 켄트는 서명할때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기본 인권의 침범에 대해 더욱 강력하고 공개적으로 비난할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한다”면서 “우리는 계속 노력해야 한다. 중국이 언젠가는 법치와 언론, 집회,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기를, 천안문광장에서 파룬궁의 ‘진선인(眞·善·忍)’을 큰 소리로 웨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한다” 라고 했다.

사고와 판단



파룬궁 서적에서 살생과 자살은 모두 죄가 있다고 명확히 밝혔다. 진정한 수련인은 자살, 분신 자살을 하지 않는다. 모든 파룬궁서적과 영상 자료는 모두 인터넷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해외에도 많은 파룬궁에 관한 정면 보도가 있다. 하지만 중국공산당은 박해를 시작하면서 파룬궁 서적을 대량적으로 소각하고, 인터넷에서 일체 파룬궁의 정면 정보를 봉쇄했으며, 사람들이 진상

을 요해하는 것이 두려워 파룬궁과 관련되는 단어를 민감한 단어로 설정했다.

중국공산당이 보도한 일부분 자살, 살생 같은 사건은 박해 전에는 종래로 있어본적 없었다. 무엇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보도들이 갑자기 매체에 끊임없이 나타나는가? 무엇때문에 외국의 지극히 자유로운 환경에서는 오히려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

(1 면의 계속) 미국인들이 부정 선거를 보아낼수 있게 된 것은 신의 보상과 보호 이다. 현재 전세계는 모두 보았고, 우리는 이를 만천하에 폭로 할 것이다.

문의회사 이사회 주석 : 미국은 신의 신앙에 회귀 할 것이다

케빈 제십은 “전세계 책략 연맹”이사회 주석 이다. 그는 연설에서 오늘은 평범하지 않은 의미가 있는 날이다. 백만 명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된 것은 우리 인민이 승리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표시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표시했다 : 사악한 세

력은 낙태를 지지하고, 생명을 살해하며, 아이들을 학교에서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며, 또 힘을 아끼지 않고 우리의 가정 전통을 파괴한다. “우리는 현재 이런 것을 다시 건설하고 제자리로 돌려놓아 신의 신앙으로 회귀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건국이념 이다. 희망이 없어 보일수록 신의 빛은 더욱 체현 된다.”

그는 말했다 : “만약 현재 우리가 일어나지 않고, 사기를 폭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이후에 그 어떤 공평한 선거도 없

을 것이다.” “우리의 언론 자유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했기에 이는 미국인이 나서야 하는 원인 이다. 이는 제 1 수정안의 권리와 언론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이다. 미국은 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그는 또 말했다 : “미국의 건국이념은 신에 대한 신앙이다. 오늘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를 올리고 있다. 사람들은 이미 깨어났으며, 그들의 신성(神性)은 깨어나고 있다. 이는 사람으로서 신심을 크게 증가 시키게 한다.” “현재 신이 일체를 장악하고 있으므로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 ◇

길림성 499 명 파룬궁수련생이 중공에 의해 박해받아 사망되다

[명후이왕] 최근 사람을 진감하는 한편의 진상 영화 <영원한 50 분> 이 국제사회에서 방영되어 각계의 광범한 호평을 받고 있다. 관중들은 파룬궁수련생들이 중공악당의 발광적인 박해속에서 중국인중들에게 파룬궁진상을 들을 수 있게 하고 중공의 거짓말에 기편되지 않게 하기 위해 진상 삽입 방송을 해낸 장엄한 거동에 감동했다. 이 하늘땅을 진감하는 이야기는 길림성 장춘시에서 발생했다. 당시 중공악당 관원들은 아주 공포를 느꼈고, 파룬궁 수련생을 대대적으로 체포하라고 지시했다. 10 여명 파룬궁수련생이 박해받아 사망되고, 더욱 많은 파룬궁수련생들이 잔인한 박해로 불구가 되거나, 정신장애, 병 등이 생겼다.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한 21 년이래 길림성에 얼마나 많은 파룬궁수련생들이 수련을 포기하지 않고 진상을 세인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박해받아 사망했는지 모른다. 명후이왕 불완전한 통계

에 따르면 길림성에만 적어도 499 명 파룬궁수련생들이 박해받아 사망했다. 중공의 봉쇄때문에 실종된 아주 많은 파룬궁수련생들의 생사는 확인할 수 없기에 명후이왕에서 찾아낸 수치는 다만 박해받아 사망된 파룬궁수련생들의 일부분 일 뿐이다.

길림성에서 박해받아 사망된 파룬궁수련생의 각 지역 분포 정황: 장춘 167 명, 길림 137 명, 연변 44 명, 백산 35 명, 사평 34 명, 통화 34 명, 송원 22 명, 료원 19 명, 백성 7 명.

류청전 (刘成军), 남, 32 세, 장춘 농안현 파룬궁수련생, 국영기업직공. 2002 년 3 월 5 일, 장춘시 유선 TV 방송 8 개 채널에서 동시에 파룬궁 진상 동영상 ‘파룬따파 홍전세계 (洪傳世界)’ ‘분신 자살 인가? 속임수 인가?’ 등 진상 동영상 40~50 분 간 방영됐다. 이 진상 동영상은 아주 많은 민중들로 하여금 파룬궁이 모함받고 박해받은 진상을 알게 했고, 중국대륙 및 해외까지 거대



▲중신망 2002년 4월 1일 사진에서 볼수 있는바, 류청전은 감금실에서 이미 무력해서 자세도 유지하기 힘들어 한다.

한 진동을 일으켰다. 류청전은 최초의 행동에 참여한 주요 인사이다. 한손으로 파룬궁에 대해 잔인한 박해를 시작한 독재자 강택민은 이에대해 극도로 공포를 느끼고 ‘무자비하게 살해하라’고 밀령을 내렸다. 2020년 3월 24일, 류청전이 납치 당할때 경찰은 이미 수갑과 발족쇄까지 착용한 류청전의 다리에 고의적으로 총 두발을 쏘 중상을 입게했다. 2002년 9월 18일, 류청전은 19년 불법징역형을 선고받고 불법으로 길림감옥에 감금됐다.

길림감옥에서 류청전은 매일 참혹한 박해를 받아 탈상 (脱像) 까지 했다. 류청전은 1년 9개월간 참혹한 옥살이 시달림을 당하다가 2003년 12월 26일, 장춘 길림대학 중일 친목병원에서 32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

■ 연변 박해 진상 ■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하는 연길시 세뇌반을 폭로하다

악도들은 연길시 여가 (如家) 호텔에서 세뇌반을 열어 계속해서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한다. 조양천 파룬궁수련생 2 명이 여가호텔 세뇌반에 납치됐다. 목격자의 말에 따르면 적어도 20 여명 파룬궁수련생이 납치됐고, 유다 (배신자) 송수친 (宋秀芹) 도 있었다. 호텔 창문커튼은 끄꽂 달았으며, 호텔 입구에는 경찰차가 주차돼 있었다.

여가호텔은 천하 보행가 (步行街) 동쪽길 맞은편, 향양유치원 (向阳幼儿园) 우측에 위치한 원신라호텔에서 부도됐다.

지점: 해방로 1001 호.

연변 파룬궁수련생 3 명이 불법 납치되다

도문시 파룬궁수련생 명판친이 납치되다

명판친 (孟凡芹) 은 12월 15일 자택에서 불법으로 납치된 후 현재 연길세뇌반에 감금됐다.

양진옌과 장수즈 납치상황 보충

12월 7일, 연길 조양천 파룬궁수련생 양진옌 (杨军艳) 은 고속철도파출소 경찰에 의해 본인 과일상점에서 납치됐다. 현재 불법으로 연길시 구치소에 감금됐다.

12월초, 도문시 파룬궁수련생 장수즈 (姜淑芝) 는 납치된 후 아마도 다리를 다친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연길시 구치소에 불법감금됐다.

질녀, “홍수는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명후이왕] 금년 10월 1일 휴가때 100여 키로 미터 떨어진 곳에 사는 질녀가 가족을 데리고 우리 집에 와서 몹시 신기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올해 7, 8월에 며칠 동안 폭우가 내렸는데, 빗물은 마치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쏟아지고 광풍이 불어 나무를 쓰러뜨리고, 제방을 넘은 강물이 급속도로 사방으로 치고 나갔다고 했다.

질녀네 집은 큰길과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다. 큰길의 노면은 질녀네 집보다 높았고 주변에 이웃집이 많았는데, 지형적으로 더 높은 집도 있었다.

하루는 정오에 이웃집 아저씨가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우르르”하며 귀청을 때리는 소리가 들리면서 길에서 아래로 홍수가 쏟아져 내려와 아저씨네 현관문을 쳐서 열었고, 물이 단번에 깔깔 쏟아지며 실내로 밀려들었다. 아저씨는 홍수 소리에 놀라 깨어났고, 서둘러 밖으로 빠져나와 우산을 들고 높은 곳에 서서 홍수가 집을 삼키는 것을 멍하게 바라보았는데, 한참 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질녀는 자기 집 2층에 서서 사방을 둘러보고 영상을 찍었다며 나에게 보여주었다. 아이고! 누런 물이 화면을 가득 채웠는데, 집, 나무, 농경지의 범모가 모두 홍수에 잠기고, 어지럽게 떠다니는 가구와 발버둥 치는 가축 등등이 정말 참혹해 놀라울 따름이었다.

당시 질녀는 자신의 집 1층이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 가슴이 철렁했다. 질녀가 확인하러 아래층으로 내려갔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1층에 물이라곤 조금도 없었다. 질녀가 다시 건물 앞뒤의 복도에 가 봤지만, 모두 말라 있었고, 물이 조금도 없었다. 나중에 질녀는 자신이 늘 “파룬따파하오 (法輪大法好 -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찌싼런하오 (真善忍好 - 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정성껏 외운 것을 생각해냈고, 대법 사부님께서 자신들을 보호해 주셔서 홍수가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지 않은 것을 알았다!

10여 년 전, 내가 질녀네 식구에게 대법의 진상을 알려주자 온 식구는 중국공산당의 당, 단, 대 조직에서 탈퇴했다. 나는 또 식구들 모두에게 진상 호신부를 하나씩 주고, 늘 “파룬따파하오 (法輪大法好), 찌싼런하오 (真善忍好)!”를 정성껏 외우면 신불 (神佛)께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알려줬다. 그들은 내 말을 믿었고, 많은 이익을 얻었다.

글 / 사천 대법제자

날아온 돌에 맞고 ‘파룬따파 하오’를 외워 목숨을 건지다

[명후이왕] 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데 최근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2020년 9월 28일 아침, 출근해 작업 배치를 마치고 사무실로 가는 길에 갑자기 대형 화물트럭이 나타나더니 트럭 타이어가 벽돌보다 넓은 돌을 깔고 지나가면서 돌이 튕겼고, 저는 날아오는 돌에 배가 부딪혀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제 상사는 깜짝놀라하며 얼른 차를 운전해 저를 응급센터로 이송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동료가 제게 알려준 말입니다.

가는 도중에 저는 천천히 깨어나 속으로 ‘파룬따파하오 (法輪大法好 -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찌싼런하오 (真善忍好 - 진선인은 좋습니다)’를 묵념했습니다. 3번째 외웠을 때 의식이 돌아와 동료에게 차를 세우라고 했으나 동료는 상황이 심각해 지체해서는 안 된다며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상태가 심각한지 확인부터 해보라며 일단 차를 세우라고 말했습니다.

차를 세운 뒤 배를 보니 돌에 맞아 벨트 모양으로 움푹 들어갔지만 상처는 없었고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무릎으로 배를 눌러보아도 아무런 불편함도 없었습니다. 저는 대법 사부님께서 저를 구해주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동료에게 별일 없으니 바로 건설현장으로 돌아가자고 말했습니다.

현장에 돌아왔지만 그래도 상사는 걱정돼 제게 휴식하라고 했습니다. 임무가 과중하고 공사 기일이 빠빽했기 때문에 저는 계속 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그때를 돌이켜보니 두렵기도 했습니다. 당시 제게는 옆에서 돌봐줄 가족 한명도 없었는데, 생각해 보니 저도 모르게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렸고 대법 사부님의 자비로운 보호에 감사할 뿐이 었습니다.

이 일이 지난지 한 달이 넘었는데 제 몸은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대법을 믿습니다. 부모님은 파룬궁을 수련한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집에 돌아간 후 이 일을 말하자 부모님은 눈물 투성이 되어 그 돌은 목숨을 앗아가려고 온 거라며 제가 대법을 믿어 사부님께서 구해 주셨으니 사부님께 감사드리면서 더 많은 사람이 대법의 은혜를 입어 사부님의 보호를 받도록 글로 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글 / 산서성 신위

